

# '황금알' 둘러싸고 작가·출판사 갈등

## '2차 저작권' 이해 대립 ... 출판권·저작권 인식강화의 계기돼야

영화, TV, CD롬 등 다매체 시대에 '책'의 가치는 더 이상 책속에 갇혀 있지 않다. 책은 이제 다른 형태로 모습을 바꿔가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그것은 가끔 책 자체가 지녔던 것보다 더 큰 부가가치를 낳는 황금알이 되기도 한다.

최근 작가와 출판사간에 논란을 빚고 있는 2차적 저작물의 사용권은 이제 우리 작가와 출판사가 책의 새로운 매체로의 변신 가능성과 이것이 창출하는 가치에 대한 관심을 본격적으로 가지게 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 출판권과 저작권

문학동네·창작과비평사·문화과지성사·민음사·세계사 등 몇몇 문학전문출판사 실무자들의 모임에서 저작물의 2차 사용에 출판사가 개입하고 이에 상응하는 지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계약서상에 명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이번 논란의 발단. 민음사의 장은수씨는 "출판시장 개방으로

외국 출판사들이 들어올 경우 완벽한 저작권 업무능력과 국제적인 서비스로 우리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는 불안감과, 현재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많이 응용하고 있는 출판협회의 '표준 출판권 설정계약서' 등에도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조항이 없어서 이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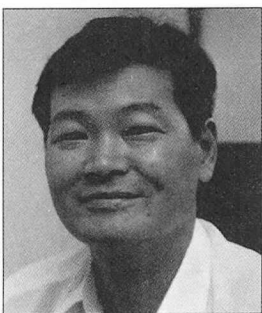
출판인들의 말에 따르면 우리의 전근대적인 계약관행을 불식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약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었다는데, 이에 대한 작가들의 반발은 예상외로 컸다. 최인석·김형경·최성각·공지영·이순원 등 주로 30~40대 작가들이 주축이 된 '젊은 작가들의 모임'(회장 최인석)이 결성되고 서명운동이 전개되는 등 조직적인 대응양상을 띠기도 했다.

작가들의 의외의 예민한 반응에 출판사들이 "작가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한걸음 물러서면서 자칫 대결국면으로 치달을 뻔했던 갈등은 진정국면

### 각계 의견

#### 출판사의 중개 역할은 가능해

강태형·문학동네 대표



2차적 저작물의 사용권한을 공동소유하거나 일방적으로 지분을 나누자고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출판사가 중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이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한 3년간을 투자와 역량강화 기간으로 잡고 그동안은 설사 작가가 원해서 출판사가 매니지먼트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일체의 대가를 받지 않겠다. 출판물의 2차적 사용은 우리 출판계의 발전과 무관하지 않다. 보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출판사와 작가간의 합의 도출이 힘들지 않을 것이다.

#### 의무조항 구체적 명시 있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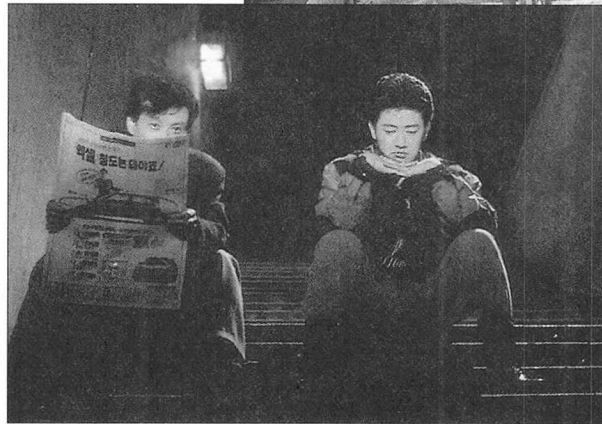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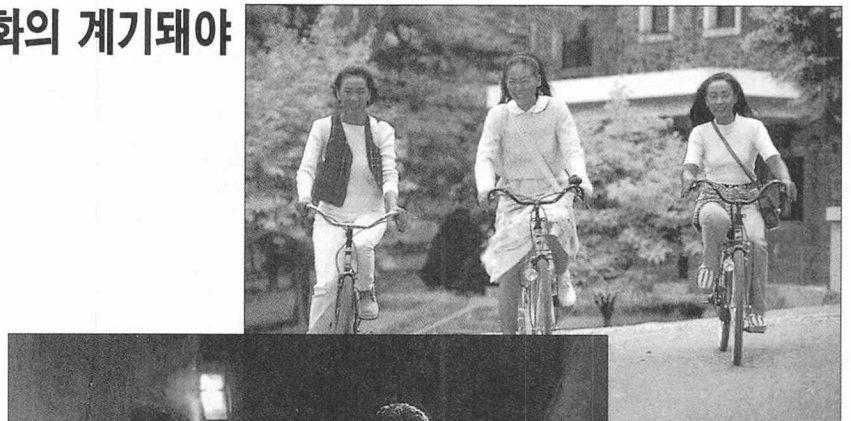
이순원·소설가



2차 저작물의 사용권한은 작가의 재산권이다. 굳이 출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 간여할 의지가

있다면 별첨 사항을 두어 사안 하나하나마다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2차 저작권을 공동소유로 명시하거나 무조건 위임한다는 조항을 가지고 있는 계약서를 계속 쓰는 출판사와는 계약을 할 수 없다.

발행부수나 판매부수의 투명성, 인쇄지급일 등 출판사의 의무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계약서안을 만들 작정이다. 이것을 출판사와 비교해 협의를 거쳐 3월중에 합의된 계약서를 만든다는 데는 출판사들과 뜻을 같이한다.



영화로 제작된 문학작품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비상구는 없다)(아래)의 한 장면.

에 들어갔다. 민음사 박맹호 사장은 "2차 저작물의 사용 및 그 이윤에 대해서는 절대 관여 않겠다"는 입장이고, 문학동네(대표 강태형)를 비롯한 몇몇 출판사도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동안은 2차 저작물 사용에 관해서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은 명백히 작가의 몫

한승헌·변호사



계약이란 어차피 당사자 간의 문제다. 각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출판사와 작가들이 지나치게 예민해 있는 것 같다. 별다른 이슈가 없는 출판계에 오랜만에 이슈가 나와서인지 언론들이 논쟁거리로 부각시키는 느낌도 든다.

저작권은 명백하게 작가들의 것이다. 이것을 출판사에 위임할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는 저자의 선택여부에 달린 것이다. 출판권 외의 다른 권한을 출판사에 위임하고 싶지 않은 작가는 계약할 때 안하면 된다. 만약 출판사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 그 출판사와 작가의 계약은 성사되지 않는 것이다.

"계약은 어디까지나 작가의 선택사항"임을 강조하는 창작과비평사의 고세현 편집국장은 '저작물의 2차적 사용을 출판사에 위임하고 그 구체적인 조건은 저자와 출판사가 협의한다'는 조항을 명시한 현행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할 방침임을 밝힌다. 현행 계약서로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 가령 <장길산>의 경우, '영화' 제작 의뢰는 본인이 직접하고 싶다고 해서 계약시 그 조항은 삭제했고, 최근 인기를 모았던 김현구 교수의 <일본이야기>는 번역 조항을 삭제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면 된다는 것이다.

#### 주먹구구식 계약 관행에 대한 도전

표면적으로는 저작물의 2차적 사용권한과 이윤의 처리 문제에 대한 갈등으로 보이는 작가들과 출판사간의 논란은 속을 들여다보면 서로에 대한 해묵은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한 출판인은 "작가들의 출판권 침해 사례는 셀 수도 없이 많다. 한 작품이 영화가 되거나 번역되거나 하는 문제는 책의 판매부수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데, 적어도 출판권 계약기간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 출판사가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작가측은 "판매부수나 발행부수의 투명성도 보장되지 않으며 인쇄지급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그동안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왔다"고 반박한다. 아울러 작가들은 "출판사들이 저작권의 매니지먼트를 하고 그 수수료를 받겠다고 하지만 언제



두산100주년 기념

## 어제, 펫 매시니의 재즈 기타에 취했었다면 오늘은, 아인슈타인의 理性에 빠져보는거야!

### 자유로운 理性을 위한 과학교양서, <사이언스 마스터즈>

감성만 자유롭다면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라면,

理性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사이언스 마스터즈 -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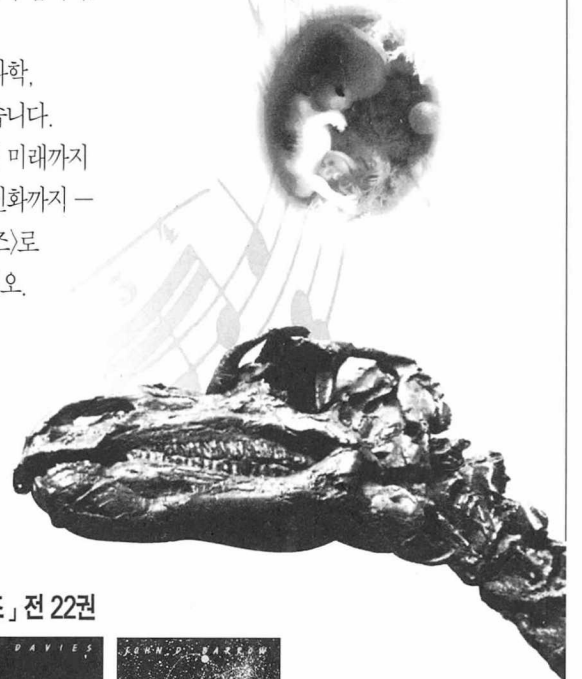
理性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인류의 기원에서 우주의 미래까지

세포의 진화에서 성의 진화까지 -

이제, <사이언스 마스터즈>로

진정한 자유인이 되십시오.



### 「사이언스 마스터즈 시리즈」 전 22권



**① 에덴 밖의 강**  
유전자로 본 진화의 매커니즘  
과연 인류는 무한대로 복제가 가능한 것인가?  
유전자의 결합과 경쟁  
그리고 새로운 종으로의 분리는?  
리처드 도킨스 지음



**② 마지막 3분**  
지구 최후의 운명에 관한 시나리오  
2128년 8월 21일,  
거대한 해빙과 지구가 부딪힌다.  
남은 시간은 3분. 지구의 운명은?  
폴 데이비스 지음



**③ 우주의 기원**  
우주 최초의 흔적에 대한 탐사  
코비위성이 전한 우주의 비밀은 무엇인가?  
우주의 시작 초창기, 오늘날의 우주에 이르기까지 그 비밀의 기원을 찾아간다  
존 베로우 지음



**④ 인류의 기원**  
화석 사냥꾼이 들려주는 최초의 인간 이야기  
인류는 과연 20만 년 전 아프리카의 한 여인으로 부터 시작되었는가?  
6만 년 동안 지구의 주인이었던 네안데르탈인이 사라진 이유는?  
리처드 러키 지음



**⑤ 원소의 왕국**  
화학 원소들의 나라로 떠나는 여행  
어떻게 주기율표 통해 우주 만물을 이해할 것인가? 물질의 핵심으로서의 산소는 여행이 될 것이다  
파터 앳킨스 지음



**⑥ 자연의 수학적 본성**  
아름다운 관념의 우주, 수학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  
눈송이는 왜 모두 6각형인가?  
호랑이는 줄무늬, 표범은 점박이무늬 이유는 무엇인가?  
수학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다  
이언 스텐워드 지음

정가: 각권 6,800원  
\*계속 발간 됩니다.



두산동아  
영업 (02)861-4818 / (02)853-5608

### 2차적 저작물의 사용권한이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2차 저작권'은 원저작물이 되는 출판물이 영화나 방송용으로 제작되거나 만화나 전자책 등 여타의 형태로 변형되는 경우, 그 사용권한과 그에 따르는 이윤의 문제를 통칭하는 것으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2차적 저작물의 사용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르다(2차 저작권은 정확한 용어는 아니고 더욱이 법률적 용어는 아니다). 현행 저작권법상에 이 문제를 명시한 곳은 제 2장 5조.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저작물(이하 '2차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가 그 내용이다.

현행법이 명시한 바에 따르면 원저작물이 되는 출판물이 영화나 연극, 방송용으로 각색되거나 CD롬으로 만들어질 때, 혹은 외국어로 번역될 때처럼 출판이 아닌 다른 형태로 사용될 때 그 사용여부의 결정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는 원저작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된다.

이라고 실토한다. 저작권 집중관리 단체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등 이미 활동 중인 단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제기됐지만 실제 당사자들은 고개를 찡그렸다.

결국, 현재 상태에서는 출판사가 아니면 작가 자신이 해야 한다는 결론인데, 출판사가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자신들의 저작권을 관리해준다면 작가로서는 사실상 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출판사들이 '능력과 신뢰'를 함께 보여줘야 할 것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최근 문학전문 출판사들이 우리 문학의 세계화를 목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도서전에 공동부스를 마련하는가 하면 영문홍보지를 만드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모로 반가운 일이다.

현재 일부 출판사와 작가들은 3월중에 '모범 계약서'를 만든다는 합의하에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가와 출판사의 의견 조율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 또 그 결과물로 만들어질 계약서가 어떤 내용을 지니게 될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출판권과 저작권에 대한 우리 출판계 안팎의 인식이 강화되리라는 기대는 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출판계가 주먹구구식 계약관행과 가내 수공업적 경영의 틀을 벗고 세계화·기업화로 나가는 첫걸음일 수도 있다.

— 박남정 기자

출판사가 그런 노력을 했으며 그럴 역량이 있느냐"며 강한 회의를 드러냈다.

출판사의 역량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일부에서는 국내 작가들을 관리하는 에이전시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이에 대한 관계자는 "최소한 연간 매출 1억을 예상하고 에이전트 활동을 한다고 할 때, 수수료를 10%로 계산하면 연수입 4천만원 상당의 작가를 25명 이상은 관리해야 된다는 결론"이라며 현 상태에서는 현실성이 없는 대안

### 일림

## 본지 반포가 인상 안내

다음호부터 2천원으로 조정

《출판저널》 반포가 다음호(제210호, 97년 3월 20일자)부터 인상됩니다.

《출판저널》은 서평과 신간정보 전문지로서 독자 저변을 넓힌다는 취지에서 제작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보급돼왔으나, 그동안의 물가상승에 따라 부득이

다음호부터 정가를 부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1년 정기구독료는 40,000원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미 구독을 신청하신 정기구독자 여러분은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받아보실게 됩니다. 아울러 내지 광고요금도 20~25% 인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본지의 이러한 사정을 깊이 이해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더욱 알찬 지면으로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계속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3월 5일

출판저널